**룻기 7/26/2021**

제목과 배경

룻기는 주인공이 모압 사람이었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어 다윗의 증조모이자 예수님의 조상(마태복음 1:5)이 된 한 여인의 이름을 따라 제목한 짧은 이야기입니다. 장르는 역사서이나 희곡적인 성격을 띱니다.

배경은 사사 시대이며 (1:1). 이 시대는 이스라엘이 영적, 도덕적으로 부패하여 불신앙으로 특징지어졌고, 민족적 분열과 이방 민족의 침략으로 얼룩진 기간이었습니다. 하지만 당시 모압과는 평화로운 관계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.

저자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무엘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본서에 다윗의 이름이 나온 것(4:17, 22)과 그 히브리 문학의 형태로 볼 때에 저자는 다윗 왕 이후의 왕정 시대의 인물로 보입니다.

**주제**: 본서의 주제는 그 이야기에 등장하는 희생적이고 신실한 몇 인물(나오미, 룻, 보아스)의 아름다운 드라마 속에 숨겨져 있는데, 그 주제는 두 가지로 첫째는 “속량(redemption)”이며 이 단어가 본서에 23번이나 나옵니다. 둘째는 인간의 헌신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“하나님의 섭리(providence)”입니다.

**특기 사항**: 하나님께서는 모압 족속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음을 명하셨는데 (신명기 23:3-6), 룻이 모압 여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. 그렇다면 메시야의 조상인 다윗 왕의 혈통에 모압 여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인데, 본서를 읽으면서 이 딜렘마를 해결해 보십시오.

**개요**

1.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옴 (1장)

2. 룻이 보아스를 만남 (2장)

3. 타작 마당으로 보아스를 찾아간 룻 (3장)

4. 보아스가 룻과 결혼함 (4장)